

김남훈

변호사

상법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진도별모강

어음수표법 선택형 문제로 사례형·기록형 쟁점까지 대비하는 강의
선택형 문제풀이를 통한 어음수표법·보험법의 선택형까지 대비하는 강의
아는 쟁점은 고득점 답안, 모르는 쟁점은 방어적 답안의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
미기출 중요쟁점의 학습을 통한 출제예상쟁점의 완벽한 정리를 위한 강의
하나의 판례를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대비로 동시에 분석하는 통합형 강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현직 변호사의 적중률 높은 실전형 문제와 강의
대면첨삭반 이외의 수강생들도 희망자에 한하여 과목별 1회 정도로 첨삭진행

일 정

2020. 9. 4(금) ~ 9. 10(목), 총 5회(월~금 강의)

시험 오전 9시 ~ 10시 30분(사례형 1시간, 선택형 30분)

강평 오전 10시 45분 ~ 오후 1시(사례형 해설→휴식→선택형 해설)

첨삭반 대면첨삭 2일차부터 진행 (개인별 첨삭시간은 2일차에 공지예정)

교 재

진도별 모의시험 문제 + 해설자료 (제공)

• 선택형 : 실전과 동일하게 편집된 문제편 + 문제가 포함된 해설집

(푸에테 로스쿨 상법 핵심 선택형 120제 ; 저자, 근간)

• 사례형 : 실전과 동일하게 편집된 문제편 + 해설자료(문제포함)

- 사례형 해설자료 구성 : 사례형 답안의 2원화(이해용 상세답안+암기용 실전답안)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민사집행법
특 강**

- 교재 : Practice 민사집행법(20년 개정판, 근간)
- 일정 : 9. 17(목) ~ 9. 24(목) / 총 6회
- 시간 : 저녁 7시 ~ 10시 30분
- ※ **매년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민사집행법의 중요쟁점에 대한 핵심정리특강**

출 제 기 준

- 2020년 상반기 판례까지 반영하여 출제예상판례를 실전형 문제로 구성
- 2020년 각종 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 쟁점을 반영하여 구성
- 2020년 상반기까지의 상사법학회 토론주제 판례까지 반영하여 구성
- 2017년부터 최근까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
- 2019년 8월 개정된 ‘상법판례백선(제7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4인 공저)’의 중요 내용을 반영하여 사례형 문제를 구성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I. 상법의 출제경향****1. 선택형**

- 선택형은 평균 2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회사법이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지문도 판례의 태도를 묻는 전형적인 선택형 문제부터, 상장회사의 특례 조문이나 상법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

- 사례형은 총 350점 중에서 100점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경향을 보면 100점 중에서 60점 ~ 70점 정도는 전형적으로 중요한 예상문제 또는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2회 사례형에 출제되었던 위장납입이 제5회 시험에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점 ~ 30점 정도가 수험생들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되는 쟁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3. 기록형

- 기록형에서는 매년 상법의 중요한 쟁점이 한 가지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양도,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백지어음, 대표소송, 주총결의취소소송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II. 상법의 학습방향**

- 상법은 회사법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선택형에서는 50% 이상이 회사법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사례형에서는 회사법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례형에서는 회사법 이외에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중요 쟁점도 학습해야 합니다.
- 또한 기록형에서도 상법의 중요 쟁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제2회 시험에서는 회사법의 중요 쟁점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3회 시험에서는 상법총칙의 중요 쟁점인 영업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5회 시험에서는 표현대표이사와 백지어음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6회 시험에서는 주주의 대표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7회 시험에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 테마에 대하여는 기록형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 선택형에서는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하여 조문(시행령 포함)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상법전을 읽으면서 해당 부분을 학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시행령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00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III. 문제출제의 기준과 강의의 목표

- 선택형 대비를 위하여 중요한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출제된 쟁점 및 기타 주관식 시험에 출제된 쟁점을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 외에 실무적으로 중요해서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과 최근 상법 학계의 경향까지도 정리하여, 내년 시험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적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출제된 이사의 보수와 집중투표제는 개정 논의가 많은 부분이어서,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하였고, 진도별 모의문제로 출제도 하였던 내용입니다.
- 어음수표법이나 보험법이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도 선택형 문제로 연습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 상법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과 달리 전형적인 답안작성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강의 또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대면첨삭을 통하여 개인별 부족부분을 보충하고,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상법 진도별 모의고사의 목표는 “푸에테 로스쿨 상법 핵심 선택형 120제와 사례형 진도별 모의고사 해설지”만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법 시험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선된 문제만으로 출제하고 강의할 것입니다. 총 5회 강의만으로도 변호사시험에 상당부분 적중할 수 있다는 것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또 다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강 의 진 행**Ⅳ. 적중사례 예시 : 제5회 변호사시험에 적중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기출문제 : 제5회 변호사시험]**

○ A회사는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보아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甲은 이를 감추고 사옥매각대금으로 확보한 2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안을 작성하였다. A회사 이사회는 전원찬성 결의로 이 배당안을 승인하였고, A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A회사의 채권자 Y는 5천만 원의 채권을 변제기에 변제받지 못하였다.

〈 문제4 〉 Y는 위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A회사 주주들 및 이사에 대하여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30점)

[적중문제 : 2015 상법 진도별모의고사 7화제]

○ A주식회사는 2015. 5.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인 P의 주도하에 이익배당에 대한 결의를 하여 배당하였다. 그 당시 A주식회사의 총자산은 80억 원, 부채는 50억 원, 자본준비금 5억 원, 이익준비금 8억 원, 미실현이익은 12억 원, 주식의 액면가 1만 원, 발행주식총수 5만주이었다.

〈 문제4 〉 위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A주식회사의 채권자 M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점)

-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4번 문항은 수험가에서 출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불의타 문제’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훈 변호사는 본 쟁점은 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 쟁점이라고 단권화 강의시간부터 강조하였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였지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가를 질문으로 구성하여, 출제된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잘 정리한 수험생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 또한 제8회 시험 사례형은 기존의 문제와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남훈 변호사는 “이사의 보수는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 다만 출제되더라도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서술하고, 사안의 결론을 맺으면 된다.”고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쟁점까지 적중하는 것입니다. 내년 시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은 김남훈 변호사의 출제 예상이 또 다시 대부분 적중하였다는 것을 내년 시험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V.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가 변호사시험에 적중한 내용**

- 2020년 1월에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진도에 출제하고 강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적중하였는지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중사례]**〈제 3 문〉****〈 공통사실관계 〉**

삼광 주식회사(이하 '삼광'이라 한다)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삼광은 위에서 언급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남시에 '삼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등기되어 있다. 삼광전기 주식회사(이하 '삼광전기'라 한다)는 2018년 초에 성남시에서 설립된 이래 '삼광전기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삼광이 생산, 판매하는 전기배터리와 유사한 제품인 전기배터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삼광과 삼광전기의 주 고객층은 대부분 겹친다.

〈 문제 〉

1. 삼광은 삼광전기를 상대로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20점)

☞ 상호전용권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본 장점에 대해서는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534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제23조와 제22조의 순서로 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1회차에서 출제하였다.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제534면, 상법 핵심암기장 13면]

甲은 2009. 8. 30.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식회사 유니텍'이라는 회사(A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컴퓨터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었다. 乙은 '유니텍'이라는 상호로 2011년경 전자부품과 컴퓨터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개인사업체로서 운영하다가, A회사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2. 4. 23.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서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라는 회사(B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A회사는 2012. 10. 14. B회사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회사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 상호전용권은 상호등기와 무관하게 적법한 선사용자가 가지므로, 미등기인 선사용자가 등기한 후사용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제22조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가 중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회사 표시 이외의 부분이 동일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예규 제8조). 따라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동일하지 않지만, '삼부 주식회사'와 '삼부 유한회사'는 동일하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1화차]

〈 공통된 사실관계 〉

B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미등기상호인 '태평양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 영업을 하다가 이를 A에게 상호를 포함하여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다.

〈 추가된 사실관계 〉

B는 그 후 6개월 만에 A의 영업소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뉴태평양 당구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당구장 영업을 개업을 하고 이 상호를 등기하였다.

〈 문제 〉

1. A는 B의 상호사용에 대하여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2. 만일 A가 위 상호를 B보다 먼저 등기하였다면, 〈 문제1 〉에서 검토한 A의 권리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유리한가? (15점)

〈 추가된 사실관계 〉 공통된 사실관계에 이어지는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가 '태평양 당구장'이라는 상호를 양수한 후에 적법하게 상호를 등기하였다. 그 후 C가 20미터 떨어진 곳에 당구장을 개업하면서 '신태평양 당구장'이라는 상호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이 C의 신청을 받아주어 '신태평양당구장'이라는 상호에 대해 등기가 경료되었다.

〈 문제 〉

3. A는 C의 상호등기에 대해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 (15점)

[문제1의 해결]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자가 제23조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전용권은 상호말소등기청구권의 내용이 기록형에도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다.

[문제2의 해결]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인 제23조의 청구에서 청구권자가 등기상호권자인 경우에 청구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정리해야 한다.

[문제3의 해결] 상호전용권

제22조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체법설'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상업등기법의 내용과 이에 근거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

〈 추가적 사실관계 2 〉

삼광의 발행주식총수 7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甲은 자녀인 P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P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삼광의 정관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삼광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P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안건을 甲의 찬성으로 승인하였다. P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직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삼광의 발행주식총수 20%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후 삼광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P를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그 선임결의 시에 P는 자신이 소유한 20%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문제 〉

2. 가.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무효사유가 존재하는가? (15점)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 202919 판결이 출제되었다.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662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제3자에 대한 사채발행을 전환사채로 정리하여 강의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와 법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법리와 동일하게 서술하면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상법 핵심 선택형 120제(132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위 판결을 설명하면서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사례형에서는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서술하고 조문만 신주인수권부사채 조문을 쓰면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662면, 상법 핵심암기장 311면]

甲은 비상장 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그 발행주식총수의 3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었다. 그런데 B회사는 경쟁업체인 A회사 발행주식을 수년간에 걸쳐 조용히 매집하여 오다가 그 지분이 28%를 넘어서자 A회사에 그 보유주식 전부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甲은 오로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A회사로 하여금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존 주주가 아닌 乙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였다. A회사의 정관에는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다. 전환사채 발행을 전후하여 B회사가 이를 다투고자 할 때에 내세울 수 있는 논거와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논하라.

– 전환사채도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이 되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은 주식의 제3자 배정과 동일하게 규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위한 요건을 정리하고,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단계별 구제수단을 정리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

[상법 핵심암기장 315면]

X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 해외자원개발과 유통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한다. X회사의 지분은 甲 45%, 乙 25%, 丙 25%, 丁 5%이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甲과 이사인 乙, 丙으로 구성되어 있다. Y주식회사는 자본금 5억 원인 비상장회사로 유통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하고, X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5개의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Y회사는 대형마트 3개를 신규로 개점하기 위하여 자본증가가 필요함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지분권자인 X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X회사는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Y회사의 이사회는 X회사의 이사인 乙에게 신주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乙은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을 납입하였다. Y회사는 乙에게 신주를 발행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형마트의 신규개점에 따른 부족한 자금을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Y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10억 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시가로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이 모두 인수하였다. 신주발행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Y회사의 감사인 B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소제기의 적법성 및 그 결과를 논하라.

- 전환사채의 법률관계는 신주인수권의 법률관계와 유사하므로, 양자를 비교하여 정리해야 한다. 특히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인정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다.

[상법 핵심 선택형 120제 132면]

71번 A주식회사의 정관은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신주발행에 반대하는 乙 등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乙 등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에서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기초한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乙 등이 취할 수 있는 상법상 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⑤ [O]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권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2]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은 무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

나. 삼광의 주주들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이 P가 위와 같이 이사로 선임된 후에 확정되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삼광의 주주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P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가? (15점)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소송의 승소판결의 효력이 장래효를 갖는다는 쟁점이 출제되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을 설명할 때,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소송의 승소판결의 효력도 모두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준용되기 때문에 제4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31조 제1항에 의하여 불소급효가 된다는 점이 입법론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상법 핵심 선택형 120제(141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이 쟁점을 사례형 형식으로 출제하였다.

[상법 핵심 선택형 120제 141면]

아래 사례에 관한 각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의 유통회사이다. A회사는 발행주식 총수가 10만 주이고, 甲이 4만 주, 乙이 3만 주, 丙이 3만 주를 가지고 있다. 甲은 대표이사로서 A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甲은 丙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자, A회사 정관에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甲의 우호세력인 丁에게 신주 3만 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하였다. 甲은 위 주주총회 소집 당시 丙에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A회사는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3만 주 전부를 丁에게 배정하였고, 丁은 2011. 5. 1. 배정받은 3만 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A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 ③ 주주 丙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전에 丁의 의결권행사를 인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도 결의방법상 법령위반의 하자를 이유로 다룰 수 있다.
- ③ [×] 신주발행무효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제431조 제1항), 무효판결 확정 전에 丁이 실효되는 주식에 기하여 이미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당해 총회결의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활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 추가적 사실관계 3 >**

삼광의 발행주식총수(모두 의결권 있음) 70%는 甲이, 30%는 乙이 각 소유하고 있다. 삼광의 기존 이사는 3명인데 그들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어서 삼광은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런데 삼광은 위 주주총회에서 甲이 신임이사 후보로 추천한 A, B, C만을 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乙이 신임이사 후보로 추천한 D는 이사 후보로 상정하지 아니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문제 >

3. 가. 乙이 위 주주총회에서 D를 신임이사 후보로 상정할 수 있는 상법상 방법이 있는가? (10점)

☞ 주주제안권이 출제되었다. 주주제안권은 소수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례형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고, 주주제안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모두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3회차에서 출제하였다.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3회차]**< 기초적 사실관계 >**

X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인 A(대표이사), B, C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X주식회사는 매년 3. 1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최근 회사의 영업이 활발해지자 조금 더 큰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어서 회사의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한다. 이에 X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는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B가 소유한 건물을 회사의 새로운 사무실로 임차한다(이하 [의안1])로 칭함, 또한 이하 의안과 의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전제함)」라는 의안을 결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주주 D는 C가 남몰래 회사재산을 횡령하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C를 해임한다(이하 [의안2])로 칭함)」라는 의안을, 주주 E는 새로운 이사선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사선임의 건(이하 [의제1])로 칭함)」이라는 의제를 각각 이사회에 제출하였던 바, 이에 X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의안2]와 [의제1]이 명시되었다.

나. 乙이 위 주주총회에서 D를 신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상법상 방법이 있는가? (다만 D도 신임이사 후보로 상정되었다고 전제함) (10점)

☞ 집중투표제의 쟁점이 출제되었다. 소수파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범위 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1회차 문제로 출제하였다.

[전범위 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1회차]

Y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제1대 주주인 甲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Y회사의 재무구조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제2대 주주인 乙은 기존의 이사진의 경영상의 과오를 밝혀내어 이를 근거로 이들을 해임한 다음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성실한 전문경영인들로 이사회를 재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주주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중이다.

< 문제 >

3. 만약 乙이 세력을 모으는데 실패하여 여전히 甲보다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다음 임기의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乙이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상법상 조치는 무엇인가? (15점)

[문제3의 해결]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의 방법과 관련하여 집중투표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 추가적 사실관계 4 >**

삼광의 대표이사 甲은 분식회계를 한 다음 이를 주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주주들은 분식회계를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고 신주인수를 하였는데 그 후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주가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 문제 >

4. 주주들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20점)

※ 주주가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인 제401조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을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630면 ~ 632면 참조)”에 대한 강의와, “상법 핵심 선택형 120제(64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강조하였다.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630면, 상법 핵심암기장 218면]

乙회사는 A, B, D가 각각 40%, 30%, 30%의 출자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A가 대표이사, E와 F가 이사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사업방향에 대한 주주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A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A의 방만한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다. B가 E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내용 및 권리실행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 평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제401조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하는 대표소송을 검토해야 한다.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632면, 상법 핵심암기장 221면]

X주식회사의 자원개발담당 상무(비등기이사) 戊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광산을 개발하는 과정 중 정보를 수집·조사하지 않고 광산개발 브로커의 보고서에만 의존하여 광산개발의 타당성을 회사에 보고하였다. X회사는 다이아몬드광산의 개발로 2조 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낼 수 있다는 戊의 일반적·추상적인 판단을 근거로 만기 3년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A 등으로부터 500억 원을 차입하고 戊의 지휘하에 다이아몬드광산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X회사는 3년이 경과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차입금도 모두 소진하였다. X회사가 戊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X회사 주식의 5%를 보유한 주주 丁이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戊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와 방법은 무엇인가와, 戊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하라.

– 비등기이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표현이사의 책임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이사의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법칙이 중요하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

[상법 핵심 선택형 120제 64면]

34번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주가차익으로 회사의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甲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다. 이때의 매수재원은 A회사의 자금이었지만, 명익은 丙의 친구 乙의 이름으로 하였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A회사의 주가는 폭락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⑤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 丙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⑤ [×] ★ [사례형]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 추가적 사실관계 5 〉

丙은 삼광으로부터 태양광사업 부문을 인수하고자 한다. 다만 丙은 인수방식과 관련하여 삼광이 장차 가지게 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 문제 〉

5. 丙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삼광은 회사를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가? (10점)

☞ 회사분할에서 존속분할, 물적분할의 장점이 출제되었다. 회사분할은 18년도에 사례형으로 출제되었지만, 연대채무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하였다. 이 문제를 해설하면서 분할의 형태에 대한 존속분할과 물적분할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상법상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라고 하면서 상법 제530조의2를 강조하였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상법 진도별 모강****강 의 진 행**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5회차]

〈 기초적 사실관계 〉

甲주식회사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E는 甲회사가 적자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전 문경영인인 A에게 甲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줄 것을 의뢰하였 다. A는 甲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乙주식회사에 흡수합병시키기로 하고, 2019. 11. 28.에 분할합병계약을 작성하였다.

A는 2019. 11. 28. 甲회사의 모든 주주인 B, C 및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하여 甲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 후 2019. 12. 1. 일간신문에 “乙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결의절차를 거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회사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 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합병 공고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 및 D를 포함한 甲회 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乙회사와 甲회사는 2020. 3. 12. 甲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乙회사에게 흡수분할합병을 하는 내 용의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분할합병계약서에서는 ‘甲회사의 채무 중에서 승 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甲회사의 총 주주인 B, C 및 E의 승인 내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대한 위임은 그러한 취지가 누락된 위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였다.

한편 B는 2019. 9. 15. 甲회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D는 2019. 9. 11. 甲회사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양자 모두 현재까지 상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B와 D는 甲회사의 사채권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선택형 시험범위	사례형 시험범위
1	9/4(금)	상법총칙·상행위법 / 회사법총칙	선택형과 동일
2	9/7(월)	주식과 주주	
3	9/8(화)	기관1	
4	9/9(수)	기관2 / 신주발행과 사채 / 기타회사	
5	9/10(목)	어음수표법 / 보험법	회사법 전범위

※ 사례형의 경우에는 사례형 시험의 특성상 진도 외의 범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관part는 분량이 많아서 1과 2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예습하는 교재를 2분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